

<번역 논문>

##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

게릿 판 스테인베르헨(Gerrit J. van Steenberg)\*

김동혁 번역\*\*

성경은 그 어떤 저작보다 많이 번역되었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통로 역시 번역이다. 확실히 기독교의 확산은 성경 번역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세계적으로 성경의 전체 혹은 일부가 번역된 언어는 2,500개를 넘어서고(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재 2,508개 언어), 그 수는 매년 늘어난다.<sup>1)</sup> 성경 번역의 역사는 길고 복잡하다. 이 글은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와 발전을 서술하고 분석한다. 영어 역본 중 특히 중요한 것들을 통찰할 터인데, 살피려는 내용은 대본이 되는 본문, 역본의 이론적 근거, 역본을 번역하게 된 동기를 아우른다.

이 글이 시도하는 서술과 분석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역본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 다른 이들이 역본에 관해 제공하는 정보, 관련된 배경적 요인이다. 논의의 틀로서 세 시대가 구분될 것이고, 차례대로 1611년 이전의 역본들, 1611년의 <흠정(킹제임스)역>과 그 개정본들, 현대의 역본들을 살필 것이다. 현대의 개척자들을 논의하는 단락에서는 개별 번역 및 그 번역들이 성경 번역 일반에 미친 영향이 서술된다.

논문 한 편으로 모든 영어 역본을 서술 및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

\* Gerrit J. van Steenberg, "Translations, English", M. D. Coogan,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vol. 2, 435-449. [gvansteenbergen@biblesocieties.org](mailto:gvansteenbergen@biblesocieties.org).

\*\* Yal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 감신대, 서울대 강사. [donghyukk@gmail.com](mailto:donghyukk@gmail.com).

1) 역자 주: 2016년 통계에 따르면 3,225개 언어.

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언어일 뿐 아니라, 그 역본의 종류 또한 아마도 가장 많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하는 역본의 숫자는 350에서 400개 사이로 추정된다. 이 글은 특히 중요하고 성격이 독특한 역본만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에 번역 이론과 성경 번역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될 것이다.

## 1. 1611년 이전의 역본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경적 종교시나 산문의 몇몇 단편(예컨대, 7-8세기에 살았던 캐드먼[Caedmon], 베다[Bede], 구슬락[Guthlac], 애알드헬름[Aldhelm] 등의 작품) 이외에, 불가타를 번역하려는 좀 더 지속적인 시도들이 있었다. 글로 적힌 영어 번역 성경의 첫 표본들은 이른바 행간 번역이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들은 연대를 7세기 말이나 8세기 초로 잡는다. 제일 유명한 것은 <린디스파른 복음서>(Lindisfarne Gospels)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아름답게 장식된 이 라틴어 필사본 사복음서는 698년에 린디스파른의 주교가 된 애아드프리스(Eadfrith)가 제작했다. 후에, 단어를 일대일로 옮긴 번역이 행간에 삽입되었는데, 현존하는 복음서의 영어 번역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번역을 삽입한 이는 알드레드(Aldred)라는 이름의 신부로 알려져 있다. 알드레드는 아마도 970년경 체스털러스트리트(Chester-le-Street)의 주임 신부였을 것이다. <린디스파른 복음서>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확실한 필사본으로 파먼(Farman) 신부가 제작한 <러시워스(Rushworth) 복음서>라는 이름의 필사본이 있다. 마태복음의 번역만 <린디스파른 복음서>와 관련 없는 듯하고, 다른 복음서들의 번역은 <린디스파른 복음서>의 번역을 다른 방언으로 옮겼을 뿐이다. 고대 영어의 또 다른 번역으로 990년경의 <웨섹스(Wessex) 복음서>, 다른 말로 <웨스트색슨(West-Saxon) 복음서>가 있다. 이것은 라틴어 본문 없이 영어만 들어 있는 최초의 번역이다. 이 역본들의 주된 목적은 라틴어에 능통하지 못한 성직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단어 뜻을 적어 넣는 것은 수도원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노르만 정복(1066년) 이후 성경 번역 활동은 한동안 멈추었다. 식자층이 더 이상 영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인데, 반면 라틴어는 종교적 목적에 적절한 언어로 여겨졌다.

1) <위클리프성경>(The Wycliffe Bible)



<그림 1>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30-1384년). 존 베일(John Bale)의 <대영국의 저명한 저술가들>(Illustrium Scriptorum Majoris Britanniae, 1548년) 속 삽화.

© Lebrecht Authors/Lebrecht Music & Arts

11세기와 14세기 사이에 성경을 번역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긴 했지만, 그 다음 주요 성과로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위클리프성경>이다. 이 성경은 영어로서는 최초의 완역 성경인데, 1380년에서 1384년 사이에 만들어진 듯하다. 이름이 <위클리프성경>이긴 하지만,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30-1384년)가 번역 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참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자신의 신학적 확신을 통해 위클리프는 번역의 이면에서 위대한 동기 부여자이자 격려자가 되었다. 재능 있는 걸출한 신학자로서 그는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고, 교회와 교리에 있어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선포했다. 교황이 봉토에 세금을 요구했을 때 위클리프는 이를 거부하는 잉글랜드 의회를 지지했다. 위클리프는 랭커스터(Lancaster)의 공작인 ‘곤트의 존’(John of Gaunt)에게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받았지만, 거침없는 발언들 때문에 정치적 엘리트와도 또 교회 권력파도 — 두 권력이 늘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다 — 갈등을 겪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한 동기는 그의 신학 사상에서 직접적으로 나왔다. 그는 성경이 모든 이에게 말을 건다고 확신했고, 따라서 모든 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또한 그는 이것의 정치적 함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곧, “이 성경은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통치를 위한다.”

첫 <위클리프성경>은 라틴어 본문들을 대부분으로 사용했는데, 이 라틴어 본문들이 좋은 본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 성경은 문자적 번역이었는데, 라틴어의 구문과 어순을 영어의 어법보다 우선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영어 문장은 덜 명료했다. 두 번째 판(1388년)은

위클리프의 열정적인 제자들이 퍼냈는데, 그 중 대표 학자는 존 퍼비(John Purvey)였다. 이 역본은 대본으로 라틴어 불가타를 썼고, 영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교회 권력은 1408년의 이른바 ‘옥스퍼드 법령’(Constitutions of Oxford)에서 성경 번역을 범죄라고 선언하였고, 이로써 상황을 제어하고자 했다. 이제 성경을 번역하려면 교회의 사전 승인이 꼭 필요했는데, 사실상 번역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다. 정치와 교회의 권력은 위클리프의 사상 및 번역에 반대하였고, 그리하여 1415년 <위클리프성경>은 불법이 되었다. 위클리프의 시신까지도 꺼내어져 불태워졌다. <위클리프성경>도 불태워져야 했지만, 많은 수가 보존되었다. 위클리프는 ‘롤러드’(Lollard)라는 이름의 평신도 설교자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위클리프의 사상과 번역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손으로 적은 번역은 여러 차례 필사되고 온 나라로 퍼져 나갔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위클리프성경>은 완역 영어 성경으로서는 유일하였다. 영어가 표준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이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 2) <틴들역본>(Tyndale's Version, 신약, 1526-1534년)

원어로 된 성경 본문을 이용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모두가 성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하면서, 또 인쇄술이 15세기 중반에 발명되면서, 번역은 새로운 추동력을 받게 되었다. 히브리어 성경의 첫 인쇄본이 1488년 밀라노에서 가까운 손치노(Soncino)에서 출간되었고, 다른 인쇄본들이 그 뒤를 따랐다. 불행히도 이 본문들은 임의로 선택된 필사본들에 근거하고 있었다. 단일 필사본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쇄본은 훨씬 후대에야 나타났다. 에라스무스(Erasmus)가 비평적으로 편집한 신약의 첫 인쇄본은 1516년에 출간되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한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 1494-1536년)은 ‘옥스퍼드 법령’을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런던의 턴스톨(Tunstall) 주교에게 성경을 원어에서 번역하는 일을 허가해 달라고 청했다. 틴들의 요청은 거절되었는데, 정치 및 신학적 고려의 결과였을 것이다. 얼마 전 헨리 8세는 레오 10세에게서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틴들은 유럽 다른 지역의 종교 개혁자들과 교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성경을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하겠다는 생각은 교회와 국가 권력 모두를 향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1524년 틴들은 유럽 본토로 갔고 거기서 번역을 시작했다. 틴들은 신약 번역을 마

쳤고 이는 1526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결국 틴들은 피신해야 했다. 독일의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고서 마지막에는 안트베르펜(Antwerp)으로 갔는데, 거기서 납치되어 브뤼셀 근처에서 투옥되었다. 1536년 이단으로 기소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아 교수형에 처해진 후 불태워졌다.

틴들의 신약 번역은 해설을 많이 담고 있는데, 대부분은 루터의 저작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틴들의 번역이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루터에 기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번역 자체는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한 새 작업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또 영어 용법에 있어서도 탁월하다는 찬사를 받는다(Daniell, 2003, 135-139쪽). 틴들의 신약 역본의 목적은 에드워드 아버(Edward Arber)의 1526년판 서문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근면하십시오, 독자여... 그리하여 그대가 순수한 정신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바 온전한 눈으로,<sup>2)</sup> 활력과 영생의 말씀에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이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피의 열매를 누립니다.”

틴들은 1534년 신약을 개정했고, 또 구약의 일부도 번역했지만, 구약 번역을 마치기 전에 불잡혔다. 오경(1530년)과 요나서(1531년)가 살아남았지만, 구약의 다른 부분을 번역한 작업들이 그가 불잡힌 후에 파기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의 구약 번역의 특징은 “자유롭고 대담하고 구어에 가깝다”(Metzger, 2001, 59쪽)고 규정되었다. 틴들의 작업은 이후의 영어 역본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 3) 〈커버데일성경〉(The Coverdale Bible, 1535년)

1534년 캔터베리 성직자회의(Canterbury Convocation)는 영어 번역 성경을 펴내기 위하여 교회의 공식적인 경로를 따르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틴들의 동료인 마일스 커버데일(Myles Coverdale, 1488-1596년)은 그의 멘토의 작업을 확장하였다. 첫 완역본은 1535년에 인쇄되었는데 원어에서 옮긴 것이 아니라, 표지에 따르면 “독일어와 라틴어에서 영어로 충실하고 진실하게 번역”되었다. 신약과 오경과 요나서는 틴들의 번역을 기초로 삼았다. 커버데일은 해설과 소개글을 많이 추가하였는데 주로 개신교의 입장을 견지했다. 외경들은 따로 모아서 구약 다음에 두었다.

종교 개혁에서 비롯된 가꿈은 종잡을 수 없는 교회의 발전 과정, 그리고 그것과 얽혀 있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커버데일은 잉글랜드와 유럽 본토를 자주 오가야 했다. 헨리 8세에 맞서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도 그러했

2) 역자 주: 마 6:22; 눅 11:34.

다. 커버데일의 번역은 앤 불린(Anne Boleyn) 왕비가 좋아했음에도 끝까지 공인되지 못했고, 성경의 소유와 사용은 상류층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헨리 8세의 1546년 칙령도 피하지 못했다. 커버데일의 번역을 포함하여 많은 역본들이 불에 탔다.

#### 4) <매슈성경>(The Matthew's Bible, 1537년)

왕실의 공인을 받은 첫 성경은 <매슈성경>이었다. 이 역본은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기존 번역들을 편집한 것이었다. 오경, 역대하까지의 역사서, 신약의 경우 틴들의 역본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 구약의 다른 책들과 외경은 커버데일의 번역이 채워 주었다. 표지는 토머스 매슈(존 로저스[John Rogers]의 필명)가 편집자라고 말해 준다. 매슈는 틴들과 커버데일을 안트베르펜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이 성경은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었다. 다만 일반 대중이 읽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되었고, 1539년에는 소란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왕명을 통해 금지되기까지 했다.

#### 5) <태버너성경>(The Taverner's Bible, 1539년)

<매슈성경>을 조금 수정한 역본이 1539년에 나왔다. 이 역본의 의의는 이것이 잉글랜드 안에서 온전히 인쇄된 첫 성경이라는 사실에 있다. 해설에서 볼 수 있었던 노골적인 개신교적 관점이 조금 누그러졌다. 리처드 태버너(Richard Taverner)는 그의 역본 속에 자기가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한 외경을 집어넣었다.

#### 6) <큰성경>(The Great Bible, 1539년)

<큰성경>도 1539년에 출간되었다. <큰성경>은 <매슈성경>을 커버데일이 개정한 것인데, 이 작업은 헨리 8세의 핵심 장관이었던 토머스 크롬웰(Thomas Cromwell)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1540년에 다시 한 번 개정되면서 번역이 더 좋아졌다. <큰성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가로 9인치(23센티미터) 세로 15인치(38센티미터)에 달하는 크기 때문이다. 표지에는 헨리 8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당대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성경은 교회마다 한 권씩 비치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과 그에 수반되는 교회적 논쟁의 일환으로 성경 읽기가 제한되었고, 1546년에는 성경들을 불태울 것이 명해졌다. <큰성경>은 분서를 피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일

은 신뢰받는 엘리트들에게만 허락되었다. 헨리 8세 사후 에드워드 6세의 치하에서 교회 내 성경의 지위는 다시 높아졌지만, 1553년 에드워드 6세가 죽자 박해가 일어났다. 로저스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커버데일은 제네바로 도망갔다.

#### 7) <제네바성경>(The Geneva Bible, 1560년)

16세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역본은 의심의 여지없이 <제네바성경>이었다. 이 성경은 제네바에 살던 영국 망명자들이 제작한 것이다. 베자(Beza)<sup>3)</sup>와 칼뱅의 노력을 통해서 제네바는 신학 연구의 주요 센터이자 유럽 개혁개신교(Reformed Protestantism)의 허브로 발전해 있었다. 구약은 <큰성경>에 기초했는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참고하여 개정 및 수정하였고 레오 주다(Leo Juda)의 <라틴어 성경>(1544년)도 참고하였다. 신약은 <매슈성경>(실은 틴들의 신약)을 기초로 썼고, 또 베자의 조언 및 그의 라틴어역 신약에도 의존했다. 칼뱅이 서문을 썼고, 칼뱅의 매부인 윌리엄 윌팅햄(William Whittingham)이 편집팀에서 큰 역할을 했다. 긴 해설들은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몇몇 경우는 당연하게도 칼뱅적, 때로는 반가톨릭적 성향을 보여 주었다. 로마체 활자, 절 구분, 독자를 위한 많은 도움말은 이 역본이 인기를 얻는 데에 한몫했다. 일부 보충 자료가 정치적 성격을 띠었으므로 정치 지도자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제임스 왕이 그러했다.

#### 8) <비숍성경>(The Bishop's Bible[주교의 성경], 1568년)

공인받은 두 번째 영어 역본인 <비숍성경>은 <제네바성경>에 대한 응답이었다. 후자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잉글랜드의 정치 및 교회 기득권층은 <제네바성경>이 <큰성경>의 으뜸 자리를 해친다는 사실에 불쾌해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 매슈 파커(Matthew Parker)의 주도하에 <큰성경>이 개정되었는데, 편집자들은 당시 이미 주교였거나 후에 주교가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름이 붙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기초했다고 여겨진 개정만이 허락되었다. 개정에 참여한 이들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었고, 편집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개정의 질과 양 역시 고르지 못했다.

3) 역자 주: 또는 드베즈(영어: Theodore Beza; 라틴어: Theodorus Beza, 불어: Théodore de Bèze 또는 de Besze).

### 9) <림즈두에이성경> 또는 <두에이림즈성경>(The Rheims-Douay Bible/Douay-Rheims Bible, 1582-1609년)

정치 지형이 변하면서 종교 망명을 떠나는 이들의 성격도 변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치하에서 몇몇 가톨릭 신자들이 도망가야 했는데, 그레고리 마틴(Gregory Martin)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마틴은 1582년 랭스(Rheims)<sup>4)</sup>에서 출간된 신약 번역본의 핵심 학자였다. 마틴은 소수의 학자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그 중에는 윌리엄 앨런(William Allen)이 있었는데, 일찍이 1568년에 두에(Douay)에 잉글랜드 사제들을 위해 가톨릭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었다. 신약 역본이 출간될 당시 이 신학교가 랭스로 이사해서 잠시 그곳에 있었다. 이 역본은 라틴어를 대본으로 썼다. 그리스어 본문을 참고했고 그 내용을 여백에 적기도 했지만, 이 역본의 서문에 따르면 라틴어가 더 우월한 언어였다. 라틴어에서 온 표현(proselyte[개종자], neophyte[초심자] 등)이 비교적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런 특징과 더불어 번역에서의 일관성을 꼼꼼하게 추구한 점 때문에 말이 부자연스럽거나 읽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즈두에이성경>은 <흠정역>(Authorized Version, 1611년)의 어휘에 — 그리고 이로써 영어 전반에 — 영향을 주었다. 구약의 경우는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흠정역>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번역 자체는 1582년 마틴이 죽기 전에 끝났을 터이지만, 재원이 부족했기에 두에에서 1609년에 출간되었다. 해설과 다른 도움말은 <제네바성경>만큼 광범위하지만, 자연스레 가톨릭주의를 향한 교리적 편향성을 보여 주었다. 이 성경의 논쟁적인 성격은 표지의 문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번역에 있는 도움말들의 목적은 “최근의 다양한 번역들의 부패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과 오늘날의 종교적 논쟁들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 2. 1611년: <흠정(킹제임스)역>과 그 개정본들

1611년은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중심축으로 여겨지는 해이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경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진 않다. 17세기가 시작될 때에 다양한 영어

4) 역자 주: 프랑스어 ‘랭스’의 영어 발음이 ‘림즈’이고 프랑스어 ‘두에’(Douay)의 영어 발음이 ‘두에이’이므로, 이 성경이 <림즈두에이성경> 또는 <두에이림즈성경>으로 불리게 되었다.



역본이 존재했다. 이제 성경 번역은 국가와 교회 권력 모두에게 정치적 활동으로 여겨졌다. 국가 권력에게 있어 중요한 일은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었고, 또 세속적 동맹 및 로마 교회와의 관계에서 충성을 표현하는 일이었다. 교회 지도층은 권력 유지와 충성 모두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더욱이, 신학적 사안들은 전체 스펙트럼에 영향을 끼쳤다. 비교적 산만한 상황을 제어하기 위하여 제임스 1세 왕은 한 가지 일을 개시하였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도 영어 역본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1) <흠정(킹제임스)역>(Th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1611년)



<그림 2> <흠정(킹제임스)역>  
1611년 판 표지

© Lebrecht Authors/Lebrecht Music & Arts

종교 그룹 간의 분열 문제(다양한 영어 역본들에도 반영되어 있는)를 다루려는 노력에서 제임스 왕은 1604년 햄프턴 파크(Hampton Park)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국교회 주교들과 청교도들이 모두 참석한 이 회의는 별 성과 없이 진행되던 중 청교도인 존 레이놀즈(John Reynolds)가 발언을 하면서 전기를 맞는다. 레이놀즈는 새 번역 아니면 적어도 개정된 번역을 요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역본들이 그가 보기에 “부패했고 원문의 진리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제임스 왕은 청교도들이 사용하던 <제네바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새 번역이 필요하다는 레이놀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온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그것에 묶이게” 하고자 했다. 새 역본을 만드는 과정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통해 규정되었다. 첫째, 최고의 학문성에 근거해야 했다. 그리하여 대학교 교수들, 곧 “배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둘째, 런던의 주교 밴크로프트(Bancroft)의 제안에 따라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번역과 관련된 내용 말

고는 해설을 일절 담지 않기로 했다. 논쟁적인 해설이 없다면 더 다양한 독자층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었다. 셋째, 번역 과정에서 본문은 몇 번의 위원회를 거쳐야 했다. 마지막으로, 편집 팀과 위원회는 국교회 배경과 청교도 배경을 가진 남자들로 구성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이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에큐메니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서문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목표는 “새 번역을 만들려는 것도, 나쁜 것을 좋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라… 좋은 것을 더 좋게, 혹은 다른 많은 좋은 것들에서 그것들을 대표할 좋은 것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흠정역>은 엄격히 말해서 새 번역이 아니라 개정이었다. 서문은 <비숍성경>이 기초가 되었음을 명시하지만, 이외에도 <틴들>, <매슈>, <커버데일>, <큰성경>, <제네바성경>을 나열하면서 이것들이 원문을 더 잘 번역했을 경우에는 참고 자료로 사용했음을 일러 준다. 개정 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로 하여,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근거해서 타당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했다. 교회 관련 용어들은 보존하고자 했고, 이름은 가능한 한 원어에 가깝게 표기해야 했다. 서문은 어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또한 부당한지)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 논리는 어떤 번역 이론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이를 테면 몇몇 단어들에게 ‘높이 일어서라. 성경 속에서 너희의 자리를 항상 차지해라’라고 말하고, 똑같이 중요한 다른 단어들에게 ‘너희는 썩 물러가라, 영원히 사라져라’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 야고보의 말씀으로 책망받을지 모른다. 곧, ‘우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sup>5)</sup>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흠정역> 신약의 대본은 이른바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이었다. 이것은 에라스무스가 후기 비잔틴 필사본들을 주로 엮어서 만든 그리스어 본문이다. 오늘날 본문 비평이 많이 발전했고 더 오래되고 더 믿을 만한 필사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킹제임스역>(New King James Version, 1982년)조차도 신약의 대본으로 같은 본문을 사용하였다. 이 점은 <흠정역>에 뿌리를 두는, <새킹제임스역>보다 앞서 나온 개정들(예컨대, <영어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5],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개정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새미국표준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1], <새개정표준역>[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과 대조된다.

<흠정역>은 당대가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최상의 작품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흠정역>은 영어와 영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쳐 왔고, 시간이 지나

5) 역자 주: 약 2:4.

면서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기념비가 되었다. 물론 약점도 있다. 모든 부분이 똑같이 아름답지는 않다. 비일관성도 있다. 심지어 이름 표기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약점들은 대본으로 사용된 본문이 미심쩍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들은 당시 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이후 수세기 동안 <흠정역>은 영어를 말하는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성경이었다.

## 2) <개정역>(The Revised Version, 1885년)

<흠정역>은 여전히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개정의 필요성은 19세기에 이르자 더욱 명확해졌다. 신약 대본에 대해서는 출간 당시부터 논쟁이 계속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와 문체가 점점 더 구식으로 느껴졌다. 마침내 캔터베리 관구 성직자회의에서 개정을 실행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역> 프로젝트는 열여섯 명의 학자가 관리했는데, 그 중 일부는 국교회 아닌 교파 소속이었다. 가톨릭은 참여를 거절했다. 서문에 따르면 이 작업은 “성직자회의의 위원회가 작성한 원리와 규칙” 몇 가지에 바탕을 두었다. 주요 원리 중 하나는 “기존 역본에서 사용된 문체를 충실히” 따르고 “<흠정역> 본문을 수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적게, 또한 일관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충실함’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없지만, 최종 선택된 번역문을 보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에 동일한 영어 어휘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름의 음역이 보다 일관성 있게 수정되었다. 더 우수한 그리스어 대본을 사용한 점도 이 역본이 개선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구약은 여전히 마소라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였지만, 성서 히브리어학의 발전된 지식도 함께 고려하였다.

프로젝트가 막 시작되고서 미국 학자들을 아우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구약과 신약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 위원회가 미국에도 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번역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영국에서 내려졌다. 미국 학자들은 대체로 영국의 안내 지침이 너무 엄격하다고 느꼈다. 미국 측은 구식으로 느껴지는 언어를 좀 더 많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편이었다. 미국 학자들이 제안했지만 거절된 수정 사항의 일부가 따로 부록에 실렸다. 개정의 범위가 불만족스러웠던 미국 학자들은 결국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을 펴내게 되었다.

<개정역>이 처음 나왔을 때 영국 내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역본은 전작의 위치까지 이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체를 낳은 엄격한 문자주의, 그리고 많은 경우 구식이 되어 버린 어휘 때문이었다.

### 3) <미국표준역>(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년)

<미국표준역>의 출간은 그 짝인 영국의 <개정역>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개정역>과 함께 출간된 부록은 미국의 위원회들이 제안한 수정 사항 중 일부만 담고 있었다. <미국표준역>의 서문에 따르면 “부록 그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부록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충실함과 정확성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중요했던 것은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 미국판을 발행하면서, 영국의 개정자들 및 출판사와 아무 연결점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미국의 개정자들은 부록을 본문 속에 포함하는 작업 이상의 일을 함에 있어 아무 거리낌이 없음을 스스로 느꼈고, 그 억제된 수정 사항들을 본문에 많이 도입함에 있어서도 더 이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특히 중요한 수정 사항으로 (<개정역>에서 ‘LORD’[주(님)], ‘GOD’[하나님]으로 번역된<sup>6)</sup>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네 글자를 ‘Jehovah’(여호와)로 쓴 것, ‘Ghost’(영, 혼) 대신 ‘Spirit’(영)을 쓴 것, ‘grave’(무덤), ‘pit’(구덩이), ‘hell’(지옥) 대신 ‘Sheol’(스올)을 쓴 것이 있다. 문법도 수정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표준역>은 그 문체와 언어에 있어서 <개정역>에서 그리 멀지 않다. 이 역본은 일부 교회에서 공식 역본으로 썼기에 초기에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는 영국판 짝인 <개정역>이 잉글랜드에서 겪은 상황과는 대조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체와 다수의 구식 어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의 성경이 되지는 못했다.

### 4) <개정표준역>(The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년)

<개정표준역>의 서문은 이 역본이 “1611년 출간된 <킹제임스역>의 개정인 1910년 출간된 <미국표준역>의 공인된 개정”임을 선언한다. 1928년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국제종교교육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Religious Education)는 <미국표준역>의 저작권을 획득하고서 이 역본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위원회를 임명하였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는 후 몇 가지 안내 지침이 명시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공적 예배 및 개인적 예배”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구약의 대본

6) 역자 주: 두 단어 모두 원어가 고유 명사임을 알려 주기 위해 작은 대문자를 사용한 점에 주의하라.

은 마소라 본문이었지만, 번역에서 (본문 수정과 다른 고대 역본들의 독법을 포함하는) 현대 본문 비평학의 결과들도 받아들였다. 신약의 대본은 더 이상 공인 본문을 사용하지 않고 절충 그리스어 본문으로 대체하였다. 단어를 엄격하게 일대일로 옮기는 원칙은 포기하였다. 고어체 어투를 남겨둔 곳도 좀 있었지만 언어는 일반적으로 현대화되었다. 서문에서 번역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어구들을 쓰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틴들>-<킹제임스>의 위대한 전통과 나란히 설 수 있을 만한 단순하고 항구적인 단어로 나타내려 했다.” 그 결과 번역은 이전 역본들보다 더 자연스러워졌다. 영국의 대표자들을 포함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영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번역인 <새영어성경>(New English Bible)을 펴내려는 계획이 막 세워졌기 때문이다. <개정표준역>은 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졌고 영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사용하였다.

<개정표준역>은 정기적으로 개정되었다. 1977년에는 외경을 모두 포함한 판(edition)이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종교 개혁 이래 가톨릭과 개신교와 정교회가 모두 받아들인 최초의 번역이었다.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는 일부 진영에서 자유주의적이라고 여겨졌으므로, <개정표준역> 또한 의심스럽게 생각되었고 심지어 공산주의 성경이라는 악의적인 비난도 받았다. 자유주의라는 비난은 구약 번역이 신약과 일치하도록 강제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더욱 높아졌다. 예컨대, 이사야 7:14는 ‘처녀’(virgin)가 아닌 ‘젊은 여자’(young maiden)로 옮겨 번역되었다.

##### 5) <새미국표준성경>(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1년)

성경의 번역, 출판, 반포에 헌신하는 보수적 간(間)교파 사역 단체임을 주장하는 로크먼 재단(Lockman Foundation)은 1971년에 <새미국표준성경>을 출간했다. <새미국표준성경>이라는 이름은 <미국표준역>의 개정판을 암시하긴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서문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표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로크먼 재단은 이 중요성을 비롯하여 <미국표준역>의 다른 항구적인 중요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최근에 새로이 발견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본문 자료들을 아우르고 <미국표준역>을 좀 더 현대적인 영어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하여 <미국표준역>과 <킹제임스역>의 유서 깊은 원칙들에 근거한 새 번역 프로젝트가 1959년에 시작되었다. 그 결과물이 <새미국표준성경>이다.” 구약의 대본은 키텔(Kittel)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였는데, 히브리어 사전학과 동족어와 사해 두루마리에서 얻게 된 새로운 통찰들도 함께 고려되었다. 신약의 대본은 그리스어 신약인 네스틀레(Nestle) 26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에서 벗어난 예들이 다른 설명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신학적 편견이 드러나는 예들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암시와 관련해서 두드러진다. 보수적 독자층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명시적인 노력(예컨대, 이사야 7:14의 ‘처녀’)과 계시록 번역에서의 전천년적 편향성도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문체와 관련하여 이 번역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어순을 따르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 6) <새킹제임스역>(The New King James Version, 1982년)

<새킹제임스역>은 토머스넬슨(Thomas Nelson) 출판사의 주도하에서 발전했다. 개정의 방향은 <흠정역>의 언어를 현대화하는 것이었고, 본문의 토대나 번역 원리는 크게 조정하지 않고자 했다. <흠정역>의 모든 본문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외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출판사가 어떤 보수적인 일관성에 호소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결과물은 옛 <킹제임스역> 문체가 비교적 현대적인 어휘·문법과 약간은 비일관되게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 7) <새개정표준역>(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년)

<개정표준역> 위원회는 해체되지 않았는데, 1974년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부터 <개정표준역>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 달라는 위임을 받는다. 주요 동기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1) 히브리어와 친척 관계에 있는 다른 셈어로 된 문서들의 발견과 해석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2) 신약 책들의 경우는 초기의 그리스어 필사본들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구약 개정의 대본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77; ed. sec. emendata, 1983년)였다. 신약 개정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그리스어 신약>(*Greek New Testament*, 1966, 3판)을 대본으로 삼았다. 서문은 개정의 방향을 “<킹제임스성경>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정확성, 명확성, 좋은 소리 및 오늘날의 영어 용법에 근거할 때에 타당한 수정들을 도입하는” 명령이라고 서술한다. 옛 표현(예컨대, ‘thee’[당신을], ‘thou’[당신이])이 많이 제거되었다. 서문은 또한 “가능한 만큼 문자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라는 격언”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새개정표준역>은 기본적으로 문자적 번역”이다. 또 다른 중요한 개정의 방향은 “고대 가부장적 문화

라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본문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면 남성 지향적 언어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새개정표준역>은 <개정표준역>의 에큐메니즘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영국용 판으로도 출간되었다. 영국용 판은 어휘를 일부 수정하고, 철자와 문법과 구두점을 조정하였다.

### 3. 현대의 역본들

20세기에는 엄청난 수의 영어 역본들이 만들어졌다. 새 번역도 있고 개정된 번역도 있고, 아주 특수한 청중을 염두에 둔 것도 있고 보다 넓은 독자를 생각하며 만들어진 것도 있다. 또한 현대에는 번역 이론과 관련된 견해에 있어서 그 다양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단락에서는 성격이 매우 독특하고 영향력이 매우 큰 번역본들만을 간략히 개관할 것이다.

#### 1) 제임스 모팻(James Moffatt)의 <새번역>(A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1926-1935년)

큰 논란을 일으킨 이 번역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적 어법과 문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읽기가 매우 쉽다는 점이다. 신약의 대본과 관련하여 심한 비판을 받았는데, 대본으로 사용된 헤르만 폰 조텐(Hermann von Soden)의 저작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점 이외에 모팻은 필사본 증거가 전혀 혹은 거의 없음에도 자주 본문에 수정을 가했다. 그는 본문들을 자신이 본래 위치라고 주장하는 곳으로 옮기기도 했다. 구약에서는 서로 다른 자료나 저자를 표시하기 위해 활자체를 구별하기도 했고, 또 신학적 편향성을 드러내기를 겁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26은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로 번역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책이 팔린 숫자는 이 번역이 요구에 부응했음을 일러 준다.

#### 2) 스미스와 굿스피드(Smith and Goodspeed)의 <미국역>(An American Translation, 1927년)

신약이 “일상의 보통 언어로” 쓰였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굿스피드는 웨스트콧과 호트(Westcott and Hort)의 <그리스어 신약>을 대본으로 삼고 (아

주 적은 수의 수정을 더하여) 신약을 일상적인 영어로 번역했다. 구약은 “그 의미가 만족스러운 한에서” 마소라 본문에 바탕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이 번역은 모팻의 번역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여겨졌다. 두 번역 모두 선구자적 가치를 지닌다. 두 번역이 마련한 길을 따라서 보다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 후대의 번역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 3) 필립스(J. B. Phillips)의 <현대 영어 신약>(The New Testament in Modern English, 1958년)

영국의 성직자 필립스의 신약 번역은 젊은 세대를 위하여 오늘날의 영어로 번역을 시도한 것이다. 필립스는 서문에서 “번역의 필수 원칙” 세 가지를 열거한다. “(1) 번역처럼 들리지 않아야만 한다. (2) 작업할 때에 번역자는 자신의 존재가 번역 속에 침입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3) 번역자는 번역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원저자가 최초의 독자들에게 만들어 준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필립스가 번역 대본으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명시하지는 않지만, 신약의 초기 판들은 그가 절충 본문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나중 단계에서 필립스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UBS Greek NT, 1966년)에 근거하여 번역을 수정했다.

### 4) <예루살렘성경>(The Jerusalem Bible, 1966년)

원어에 바탕을 둔 최초의 가톨릭 성경은 <예루살렘성경>이다. 이전 역본들은 불가타에 바탕을 두었다. 프랑스어판 <예루살렘성경>을 주로 모델로 삼았는데, 몇몇 책은 프랑스어에서 초역을 한 뒤에 히브리어 및 아람어와 꼼꼼하게 비교하였다. 편집자의 서문에 따르면 “토착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는 그 언어의 순전히 언어학적인 고어투를 없앴에 있어 자신이 참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번역자의 자유는 거기까지만이다.” 결과물은 어느 정도 현대적 영어로 번역된 읽기 쉬운 번역이었다. 학문적 해설은 유용하고 신조나 교리적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은 편인데, 이는 개신교 성서학과 가톨릭 성서학이 상당한 수준에서 일치점을 찾은 사실을 보여 준다. 주목할 만한 특징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네 글자를 ‘Yahweh’(야훼)로 번역한 것이다. 대본은 구약은 마소라 본문을 신약은 절충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했는데, 사해 두루마리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된 점들 또한 고려되었다. 1985년 개정판(<새 예루살렘성경>[New Jerusalem



Bible])에서는 남성 지향적 언어의 양이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서문이 말하는바 “주님의 말씀은 여성과 남성 모두와 상관있기” 때문이다.

5) <새영어성경>(The New English Bible, 1970년)



<그림 3> <새영어성경> 번역 위원회.

1950년 경 도드(C. H. Dodd) 위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일한 신약 번역 위원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울위치(Woolwich)의 주교, 모울(C. F. D. Moule) 신부/교수, 스타일러(G. M. Styer) 목사, 도드 목사/교수, 피비 앨런(Phoebe Allen) 총무, 덩컨(G. S. Duncan) 신부/박사, 로빈슨(T. H. Robinson) 교수.

© Oxford University Press

1946년 개신교 교회들과 대학교 출판사들과 성서공회가 연합한 위원회가 설립되어, 성경을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고자 하였다. 이 번역은 개정이 아니었다. 서문이 말하듯, “번역자들은 전통적인 ‘성경적’ 영어를 복제하기 보다는 오늘의 어투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했다.” 이 접근법을 통해 비교적 신선하고 활기 있는 번역이 탄생했는데, 다른 한편으론 번역보다는 ‘다시 쓰기’(paraphrase)에 가깝다는 비판도 종종 받았다. 구약의 대본은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1937년)였고, 신약의 대본은 절충 본문이었다. 1989년에 출간된 전면적인 개정판(<개정영어성경>[Revised English Bible])은 일반적으로 좀 더 문자적인 접근법을 보여 준다. 이 개정판은 서문에 따르면, “사용된 영어 문체가 부드럽도록 하고 예배를 위해 적절한 위엄을 지닐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다양한 배경의 남녀노소 예배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6) <새미국성경>(The New American Bible, 1970년)

교황의 회칙(encyclical letter) <디비노 아플란테 스피리투>(Divino Afflante

*Spiritu*[성령께 영감 받아], 1943년)는 가톨릭 학자들에게 성경을 불가타가 아닌 원어에서 번역할 것을 격려했다. 불가타를 대본으로 한 새 번역인 <협회역>(Confraternity Version)이 벌써 진행 중이었고 신약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불가타를 대본으로 삼는 구약은 히브리어를 대본으로 삼는 번역을 위해 중지되었다. 후자는 1959년과 1969년 사이에 몇 권으로 분리되어 출간되었다. 그 사이에 <노뭉 테스트아멘툼 그라이케>(Novum Testamentum Graece, 25판)를 대본으로 하는 신약의 새 번역 작업이 1956년에 시작되었다. 완역 성경은 1970년에 출간되었다. 이것은 이전의 구약 부분을 상당 부분 개정했고, 창세기는 새로이 번역했다. 미국 가톨릭 사제단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결과물은 논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번역은 역동적 동등성 원리에 너무 크게 영향 받았다고 느껴졌고, 몇몇은 ‘다시 쓰기’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또한 남녀를 다 포괄하는 비차별적 접근법 역시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미국성경>의 개정판에서 발췌한 성구들이 미사를 위해 승인된 성구집에 포함되어 있다. 2011년에는 <새미국성경 개정판>(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이 출간될 예정이다.<sup>7)</sup> 이 역본은 성구집 사용과 관련한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

#### 7) <기쁜소식번역>(The Good News Translation, 1976년)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가 처음에는 <기쁜소식성경>(Good News Bible)으로 나중에는 <오늘의영어역>(Today's English Version)으로 출간한 <기쁜소식번역>은 역동적 동등성 번역 원리를 따라서 형태보다 의미를 중시한다. 신약만 담은 초판은 1966년에 <현대인을 위한 기쁜 소식>(Good News for Modern Man)으로 출간되었다. 서문이 설명하는 대로, “자연스럽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모호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모든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럼에도 “번역자들의 제일의 관심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본문의 뜻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구약의 대본은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1937년)이고, 신약의 경우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1975년)이었다. 부분적으로 이 번역은 새로 글을 배운 이들뿐 아니라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이들을 위한 번역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때문에 어휘 또한 조정되었는데 전형적인 교회 용어를 피하고자 했다. 이후의 개정판들은 보다 최근의 본문 자료들을 사용했다. 1997년의 해설 성경 판은 본문의 문화 및

7) 역자 주: 2011년 3월에 출간되었다.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도움말을 제공한다. <기쁜소식번역>은 수백만 권이 팔렸지만, 보수적인 교회 중에서는 이 번역을 매우 미심쩍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책임 편집자인 로버트 브래처(Robert Bratcher) 박사의 신학적 진실성을 의심했기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번역이 단어를 일대일로 안 옮겼기 때문이었다(사실 이는 본래 정한 원칙을 따른 것이었다). 이사야 7:14를 번역할 때 ‘처녀’ 대신 ‘젊은 여자’를 사용한 것 역시 — 이 사안이 각주에 명백하게 설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 이 독자층을 더욱 우려하게 만들었다.

#### 8) <새국제역>(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1978년)

<새국제역>은 보수적 복음주의 그룹에서 폭넓게 받아들이는 번역이 되었다. 이 번역을 펴내는 일을 시작한 것은 기독교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와 미국복음주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이고, 이어서 뉴욕성서공회(New York Bible Society, 후에 국제성서공회 [International Bible Society])가 도왔다. <개정표준역>(RSV)에 대한 불만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새국제역>의 ‘국제’라는 말은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참여한 사실을 반영해 준다. 서문은 번역자들이 형식 동등성 번역 이론과 역동적 동등성 번역 이론의 사이에 자리 잡고자 노력했음을 일러 준다. “번역자들의 제일의 관심은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 그리고 성경 저자들의 사상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스어 본문의 어휘 및 문법의 세부 사항의 의미를 따져보았다. 동시에, 번역자들은 단어를 일대일로 번역하는 것 이상을 위해 애를 썼다.”

구약 번역의 대본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의 최신 판”이었고, 다른 자료들도 참고하였다. 신약 대본은 서문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어 신약 인쇄본 중 가장 좋은 것이 사용되었다.” 보다 덜 보수적인 번역본들과 차별화하려 노력하는 듯, 서문은 이렇게 말한다. “번역자들은 글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헌신한다는 점에서 하나 되었다.” 번역은 편향성을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적 전통을 견지한다. 이사야 7:14는 다른 설명 없이 ‘처녀’라고 번역했다. 해설 성경 판(1985년)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해설이 삽입되었지만, 왜 그렇게 번역하였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다.

<새국제역>의 판촉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88년에는 미국에서 <흠정역>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이 되었다. 특별판은 그 종류가 매우

많다. 2005년에는 <오늘의새국제역>(Today's NIV)이 출간되었다. 이 성 중립적 역본은 기존의 보수적 독자층에게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 9) <타낙: 성서>(Tanakh: The Holy Scriptures, 1985년)

서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타낙>은 “유대교출판협회(Jewish Publication Society)가 제작한” 번역으로 “전통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접 현대 영어의 어법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유대인들 중 히브리어를 아는 이들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은 점차 확실해졌다. <타낙>이 추구한 것은 “오늘날의 학문을 반영하고 그리하여 명료함과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타낙>은 초기 랍비 및 중세 유대교 주석가들, 문법학자들, 문헌학자들을 비평적으로 활용하고, 본문 수정을 피하면서 전통적 히브리어 본문에 의존할 것이다.” 이 시도는 아주 읽기 좋은 번역을 만들어 냈다. 다만 많은 부분에 “히브리어가 불분명함”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다.

#### 10) <신약과 시편: 포괄적 번역>(The New Testament and Psalms: An Inclusive Version, 1995년)

무례하다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현을 제거하려는 궁극의 시도로서, <신약과 시편>은 <새개정표준역>을 급진적으로 수정하였다. 남성적 은유는 비차별적 비유로 대체되었고(예컨대, God our Father-Mother[하나님 우리 어버이]), 인종에 관해 부정적인 어감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은유들은 조정되었다(예컨대, 무지를 상징하는 ‘어두움’은 ‘밤’으로). 서문은 이렇게 말한다. “이 역본은 다음과 같은 것을 대체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곧 특정한 역사적 인물과 관계없이 특정 성을 지칭하는 모든 언어,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를 경멸하는 모든 언급, 사람을 가리킬 때에 신체적 장애만으로 부르는 것을 대체 및 수정하였는데, 이 작업은 ‘다시 쓰기’를 통해, 다른 단어를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그 언어가 비차별적 이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른 합당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장 힘든 문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였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성 중립적 단어인 ‘God’(하나님)만 사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결정들은 문체와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판의 목소리 중 비교적 부드러운 것 중에는 이 역본이 성경 시대와 현대를 섞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한다. 몇몇 교회에서는 가혹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예컨대,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에 대한 왜곡”). 주목할 만한 점은 동성애를 다루는 본문들에서는 무례하다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는

언어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1) <새생명번역>(The New Living Translation, 1996년)

<새생명번역>은 <생명번역>(Living Translation)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후자는 ‘다시 쓰기’ 번역이었는데, 교리적 편향이 강했고 오류가 많이 들어 있었다. 원어에 근거하여 “생각에서 생각으로 옮긴 번역”이라고 주장되는 <새생명번역>에서는 이 약점들이 많이 수정되었다. <새생명번역>은 기존의 대체로 보수적인 신학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12) <영어표준역>(The English Standard Version, 2001년)

<영어표준역>은 “단어 대 단어의 정밀성 및 정확성에 문학적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가독성을 결합한,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새 번역”이라는 말로 소개된다. 이 신뢰할 만한 번역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다. 비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새국제역>보다 좀 더 문자적으로 접근했다. 이 번역은 “지난 반천 년 동안의 영어 성경 번역의 고전적 주류 속에” 포함된다고 조심스럽게 소개된다. “기본적으로 문자적”이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이사야 7:14는 ‘처녀’로 번역되었다. 이는 출애굽기 2:8과 대조된다. 대본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1983년)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개정 4판)과 <노뎀 테스트아멘툼 그라이케>(27판)이다.

13) <넷바이블>(The NET Bible, 인쇄본: 2005년)

이 혁신적인 <넷바이블>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netbible.org](http://netbible.org)). 이름에는 <새영어번역>(New English Translation)이라는 뜻과 ‘인터넷’이라는 뜻이 둘 다 들어 있다. 이 성경은 인쇄본 출간 전 베타 테스트를 거친 최초의 번역이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첫 계획을 세운 그룹은, 교회 그룹이나 교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대표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여러 교파를 아우르는 복음주의자들이었다. 교리적 독특성이나 종파적 편견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로 한 의도적인 결정이 일찌감치 내려졌다.” 번역자들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본문에서 직접 작업했다.” 이 역본은 약 6,000개라는 엄청난 수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 주들은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번역을 개정하는 일은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편집자들 중 한 사람은 “이 번역은 의식적으로 복음주의적이고자 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정직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한다(Wallace, 2001, 335쪽). 이 정직성을 보여 주는 예로, 이사야 7:14가 있다. 정통의 시금석이 되는 이 절에는 ‘젊은 여자’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

결정을 지지하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이 신뢰할 만한 번역은 형식 동등성과 기능 동등성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14) <현대의 토라: 유대교출판협회 번역의 성 인지적 개작>(The Contemporary Torah: A Gender-Sensitive Adaptation of the JPS Translation, 2006년)

서문은 이 번역이 1985년작 <타낙>을 “사회적 젠더에 한해서” 개작한 작업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편집자는 “<현대의 토라>에서 제공되는 성 인지적 번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히브리어 단어 ‘이쉬’(’is)를 젠더를 넘어서는 관계의 용어로서 다룬 점”이라고 주장한다.

15) <공통영어성경>(Common English Bible, 2011년)

<공통영어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기존 번역을 단순히 개정하거나 업데이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에서 펴낸 새 번역이다. 번역 팀의 핵심 목표는 성경을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 번역은 다수의 영어 독자들이 편히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번역 팀은 (다양한 개신교 종파와 로마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여러 고백 전통에서 온 500명이 넘는 학자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는 가독성 편집자도 포함되었다. 신약의 대본은 <노뎀 테스트아멘툼 그라이케>(27판)였다. 구약의 대본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4판)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타>(Biblia Hebraica Quinta, 5판)였고, 또 사해 두루마리와 칠십인역의 독법을 참고하여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 제2정경의 책들은 <괴팅겐 칠십인역>(Göttingen Septuagint, 제작 중)과 랄프스(Rahlfs)의 <셉투아긴타>(Septuaginta)를 대본으로 삼았다. 쉽게 이해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번역은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을 지향하였고, 전통적인 용어나 고어는 피했다(예컨대, ‘the Son of Man’[인자] 대신 ‘the Human One’[사람]). 이로 인해 기독교 독자층 중 보다 전통적인 그룹에게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 4. 현대의 개척자들

성경 전체 혹은 일부를 개인이 번역한 것이 최근에 몇 편 출간되었다. 이

번역들은 보통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데, 번역자는 긴 서문에 이를 명확히 설명해 준다. 이 번역들의 영향은 학문 공동체 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보다 넓은 독자층 및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번역을 제작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노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에버렛 폭스(Everett Fox)의 <모세의 다섯 책: 서문, 주석, 주를 더한 새 번역>(The Five Books of Mos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s, Commentary, and Notes, 1995년)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무엘, 사울, 다윗>(Give Us a King!: Samuel, Saul, and David, 1999년)

부버(Buber)와 로젠츠바이크(Rosenzweig)의 히브리어적 독일어 번역이 마련해 놓은 모델을 따라, 유대교학 및 성서학 교수 에버렛 폭스는 이 번역을 갖고서 “독자를 그 언어의 힘을 통해 히브리어 성경의 세계 속으로 이끌고” 싶어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반복, 암시, 두운, 언어유희 같은 장치를 보존함으로써,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히브리어의 특별한 수사법을 모방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영어를 일부러 피하는 번역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하여 독자는 “성경을 적어도 중간쯤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2) 로버트 알터(Robert Alter)의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하>(The David Story: 1 and 2 Samuel, 1999년), <모세의 다섯 책>(The Five Books of Moses, 2004년), <시편>(The Book of Psalms, 2007년),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The Wisdom Books: Job, Proverbs, and Ecclesiastes, 2010년)

히브리 문학과 비교 문학 교수인 로버트 알터는 성경의 몇몇 책을 번역하여 출간했다. 모든 책에 “주석을 더한 번역”(A Translation with Commentary)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그가 설정한 과제는 세 가지였다. “모든 히브리어 단어를 조작 없이 번역할 것, 고대 본문에 걸맞도록 적절하게 진지한 어조를 유지할 것, 핵심 어구와 본문의 난제와 성경 내러티브의 기법에 관한 유용한 주석을 제공할 것”이 그것이다. 그는 ‘그리고’를 나타낼 때마다 번역하는 등 히브리어 구문을 꽤 엄격하게 따른다. 또 히브리어의 핵심 어휘들을 각각 동일한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데, 이로써 히브리어 본문의 본래 향취와 리듬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독자에게 “주제적 주해의 주요한 수단”을

그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 간의 연결 층을 인식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추가적인 해설들은 언어학적인 사안(말장난이나 언어유희 등)이나 문화, 문학적 특징, 다른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3) 윌리스 반스톤(Willis Barnstone)의 <복원된 신약: 영지주의 복음서인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유다복음을 포함하는, 주석을 더한 새 번역> (*Restored New Testament: A New Translation with Commentary, Including the Gnostic Gospels Thomas, Mary, and Judas*, 2009년)

신약과 관련된 비정경 본문을 포함한 점 외에도, 반스톤의 번역은 여러 면에서 새롭다. 반스톤의 말에 따르면 이 번역은 “혁명”이다. 기존 번역과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사람과 장소 이름들을 그 본래의 형태라고 생각되는 그리스어, 아랍어, 히브리어로 복원한 것. 성경 어투, 즉 <킹제임스역> 이후 대부분의 번역이 빠져든 그리 사랑스럽지 못한 고어체 어투, 혹은 성경은 금인데도 납처럼 떠다니는 정말로 부적절하고 저속한 말을 피하는 책.” 이름을 복원한 것은 성경 속 인물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 다른 초점은 본문의 시적 본성이다. 반스톤은 “책의 대부분을 운문으로 번역함으로써 세계의 다른 모든 종교 문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읊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을 보이기” 원한다. 책들의 순서는 연대와 주제를 따라 복원되었다. 소개글들은 본문이 탄생한 역사적 맥락과 본래의 의도를 비취 주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그리한다. 저자는 “복원된 성경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곧 아브라함 종파들의 공통성을 드러낸다고 독자가 느끼기”를 희망한다. 또한 “신앙이 있는 이들이든 없는 이들이든 본래의 성경에 가까운 작품을 보되, 편견과 의도된 설득의 프로파간다에 뒤덮이지 않기”를 희망한다.

## 5. 번역 이론과 성경 번역

오늘날 번역 이론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기술적(descriptive) 이론과 설명적 이론을 다 아우른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성경 번역 중 명시적인 번역 이론을 토대로 한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접근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에 의존해야 한다. 기술번역학의 목적은 “번역 현상과 번역물(들)이 우리 경험의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것들을 기술하는 것”(Holmes, 1988, 71쪽)이고, 이것은 다시 “이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는 일반적



인 원리들”을 세우는 데로 이끌어 준다.

기대할 수 있는 바와 달리 이것은 특정 신학적 신념이 특정 번역 방법론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보수적인 독자층을 염두에 둔 번역들이 자유로운 번역(<새생명번역>[NLT])에서 문자적 번역(<영어표준역>[ESV])에까지 이르고, 또 비슷한 연속체가 비교적 자유로운 관점을 지닌 이들이 펴냈다고 생각되는 번역들에도 존재한다. 일관된 성경 번역 이론으로서 최초의 것은 미국성서공회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유진 나이다(Eugene Nida)와 그의 동료들이 발전시킨 이론이다. 모팻과 굿스피드의 작업에 기초하여 이들은 “번역의 새 개념”(Nida and Taber, 1969, 3-9쪽), 곧 형식 일치와 대조되는 역동적 동등성을 발전시켰다(22-32쪽). 간단히 말해서, 역동적 동등성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에 접근할 때에 “원문의 메시지는 수용 언어로 이송되되, 수용자의 반응이 원문 수용자의 반응과 본질적으로 같도록 이송된다”(200쪽). 다른 말로 하면, 의미가 형태보다 우선시된다. 후에, 역동적 동등성 개념은 기능 동등성으로 발전했지만(de Waard and Nida, 19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제안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vii쪽). 이 이론적 틀의 영향은 <기쁜소식번역>과 <새생명번역>과 <현대영어역>(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새국제역>과 <넷바이블> 같은 번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제도화된 이래로(Mojola and Wendland, 2003, 1-4쪽), 이 접근법은 세계의 많은 번역에 영향을 끼쳤다.

이 이론을 좀 더 고찰하다 보면 보다 비판적인 평가에 이르게 된다. 동등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반응이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더욱이, 원문의 수용자의 반응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모졸라와 웬들랜드(Mojola and Wendland)의 다음 진술은 옳다. “본문 읽기와 해석과 번역은 전제와 가정, 선입견과 편견, 가치 체계와 신앙 체계, 본문 전통과 관습,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와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8쪽). 이것은 성경 번역에 관한 보다 다면적인 관점 – 곧 이 모든 측면을 (대상의 인지적, 사회문화적, 구조적, 소통 상황적, 본문적 틀 같은) 커뮤니케이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과 함께 주의 깊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 – 으로 이어졌다(Wilt, 2003).

#### <주제어>(Keywords)

성경, 영어 성경, 번역, 역사, 킹제임스역.

Bible, English Bibles, translation, history, King James Version.

<참고문헌>(References)

- Bruce, F. F., *The English Bible: A History of Translations from the Earliest English Version to the New English Bible*, London: Lutterworth, 1970.
- Daniell, David, *The Bible in English: Its History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Greenslade, S. L.,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 Holmes, James S.,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1988.
- Lampe, G. W. H.,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Metzger, Bruce M., *The Bible in Translation: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 Mojola, Aloo Osotsi and Wendland, Ernst, "Scripture Translation in the Era of Translation Studies",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2003, 1-25.
-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 United Bible Societies, *About Us: About UBS Translation Work*, [http://www.ubs-translations.org/about\\_us/](http://www.ubs-translations.org/about_us/) (2011년 3월 25일 접속).
- Waard, Jan de and Nida, Eugene 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1986.
- Wallace, Daniel B., "Innovations in Text/Translation of the NET Bible NT", *The Bible Translator* 52:3 (2001), 335-349.
- Wegner, Paul D.,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9.
- Wilt, Timothy,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2003.

<Abstract>

### **History of English Bible Translations**

The Bible has not only been translated more often than any other literary work, it is also known by most people in translation only. The spread of Christianity is certainly linked with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Worldwide, the Bible or its sections have been translated into more than 2,500 languages (2,508 as of December 2009 according to a statistical summary of the United Bible Societies), and each year the number of languages that have at least some part of the Bible translated is increasing. Translation of the Bible has a long and varied history.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 English. It provides insight into the most important English versions of the Bibl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cluding the textual basis, theoretical considerations undergirding the versions, and the motivations for making the versions.